

김중명(金重明)의 해양역사소설의 세계

소명선*

smskk0604@cheju.ac.kr

< 要 旨 >

本稿は金重明の海洋歴史小説『阜の民』と『抗蒙の丘—三別抄耽羅戦記』を取り上げ、作家の海に対する思考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金重明の小説を1990年代前後の日本社会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言説のなかで考察し、歴史小説家として金重明はこれら言説に対しいかに反応しており、またこの際在日済州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はどのように表出しているのかを考える。

金重明の海洋歴史小説は張保阜という歴史的人物の再発見と三別抄の抗蒙闘争を再照明する過程を通してかつての在日文学に見られる海と島にイメージ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一方、植民地争奪戦と領土紛争の中心にあった陸地の思考・価値・秩序・世界観を拒否し、海を生活の場として自由に生きる海洋人の姿は「上無し」の水平思想と「国家なき共同体」のモデルを創出している。さらに小説に現れている海に対する思考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言説の中、東北アジアの歴史認識におけるパラダイム転換とポストモダンの克服(近代の超克、近代国民国家の超克)を試みたものとして読みうる。このような金重明の文学的営為は在日文学の新たな騎手として日本の文壇が名付けている「在日朝鮮・韓国人文学」というカテゴリを越え、在日文学の新たな地平を開いたと言える。

主語語：海洋歴史小説, 歴史認識, 海, 陸地, 海洋人

Marine historical novel, History recognition, Sea, Land, Marine person

1. 들어가며

해방 이후 일본의 문학권에서 점차적으로 기반을 다져온 재일문학이 반세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일본의 머조리티문학 속에서 그 입지와 명맥을 겨우 유지해 오던 재일문학이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 기수가 현월(玄月), 김중명(金重明),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다.¹⁾ 이들 신진작가들은 김석범(金石範), 이회성(李恢成), 이양지(李良枝) 등 기존의 작가들과는 달리 에스니시티에 호소하는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 안에서가 아닌 경계선상, 혹은 그것을 초월한 곳에서 자신의 문학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기의 세 신진작가는 각각 문학적 색채는 다르지만 재일1세대 작가들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작품세계와 일선을 그으며, ‘재일조선·한국인문학’이라는 카테고리의 경계를 넘어 재일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1)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세 명의 재일작가, 즉 현월, 김중명, 가네시로 가즈키에게서 기존의 재일문학과는 이질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이를 ‘<재일>문학의 <소생현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磯貝治良「<新しい人>を読む—金重明・玄月・金城一紀」『<在日>文学論』(新潮社, 2004.4) p.223

것이다.

본 고에서 다루게 될 김중명(1956.2~)은 재일제주인2세의 역사소설가다. 김중명은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환상의 대명인(幻の大国手)』(新幹社、1990.11)이후, 1997년에는 『산학무예장(算学武芸帳)』(朝日新聞社、1997.10)으로 제8회 아사히신인문학상(朝日新人文学賞)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무진산학전기(戊辰算学戦記)』(朝日新聞社、1999.7), 『바다의 민중(阜の民)』(講談社、2000.6), 『대해에 나가고 싶다(巨海に出んと欲す)』(講談社、2003.5) 등의 작품을 발표, 2005년에는 『항몽의 오름-삼별초탐라전기(抗蒙の丘—三別抄耽羅戦記)』(新人物往来社、2006.6)로 제30회 역사문학상(歴史文学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중명은 이러한 역사소설 창작 외에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번역 소개하여 일본의 한류열풍에 한 몫을 하였으며, 제주도 「제민일보」 4.3사건취재반에 의해 1994년부터 1998년에 걸쳐 발간된 전5권의 『4.3은 말한다』(전예원)의 일본어번역 작업에 참가하기도 한 작가이다.

김중명은 지금까지 재일문학 연구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작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사소설은 순문학 영역과는 다른 엔터테인먼트류로 분류되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하드보일드적 성격이 강한 소설인 만큼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 적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간결한 묘사로 기술되어져 있어 기존의 재일문학적 성격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²⁾

그러나 1990년대에 등장하여 창작영역에서는 역사소설만을 고집해 온 김중명의 소설은 90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사회에서 소비되어진 다양한 언설들(역사인식과 관련된 내셔널리즘 언설)에 대해 김중명은 역사소설가로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재일제주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고에서는 김중명의 역사소설 중 특히 바다를 무대로 한 해양역사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전술한 재일문학의 변화를 확인하고, 작가의 바다에 대한 시각이 포스트모던시대의 극복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1990년대의 내셔널리즘 언설과의 관계

본 장에서는 1990년을 전후로 한 동아시아의 변동과 언설의 장에서 김중명의 해양역사소설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1990년대는 내셔널리즘의 부활, 즉 네오내셔널리즘의 대두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大沢真幸)는 1990년대에 돌입한 일본 사회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사회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고부터 내셔널리즘의 독특한 부흥을 볼 수 있다. 전전일

2) 최근 재일한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중명의 역사소설이 연구의 대상이 된 선례(특히 해양역사소설에 주목하여 작가의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본의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재평가하려는 ‘역사 새로 보기’운동이 유력한 지식인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갑자기 활황을 띤 것도, 90년대에 들어서고나서이다. 국기(国旗)와 국가(国歌)의 법제화는 이러한 내셔널리즘 부흥을 콘텍스트로 하여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안전보장과 자주방위에 대한 의식의 고조와 그것에 대응한 법의 정비도 내셔널리스트틱 한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내셔널리즘의 고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너무나도 ‘우(右)’파적인 현상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90년대의 일본의 서브컬처 전반은 ‘J’를 덮어쓰는 자기의식의 고조로 특징지어진다. ‘J’라는 것은 ‘J-pops’(음악) 과 ‘J-문학’의 ‘J’이다. 이들은 거의 무국적적인 이들 문화영역에 ‘Japan’의 ‘J’를 붙이는 것으로, 일본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더욱이 일본어가 아닌 알파벳 표기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굴절된 귀속의식을 표현하고 있다.³⁾

90년대에 내셔널리즘적 언설이 팽배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사회 내부뿐 아니라 세계정세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상적으로는 제2차세계대전후 유럽을 중심으로 반근대적인 사상이 확대되어,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라는 지(知)적 흐름을 거쳐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대에 돌입했다. 정치적으로는 타민족, 타국가로부터 억압받고 민족성을 말살당한 구식민국과 제3세계국가가 제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 재탄생되었다. 1990년을 전후로 한 동구권국가의 민주화운동과 베를린장벽 붕괴는 소비에트연방체제 해체로 이어짐으로써 소위 냉전체제가 무너진 시기이다. 경제적으로는 근대적 산물인 국민국가에 편성되어 온 자본, 노동, 상품이 문화·정치·경제의 영역성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전세계로 하여금 새로운 빈부차를 만들어냈다. 소위 글로벌자본에 의해 세계경제가 재편성되어간 시기이다.

전후 경이로운 속도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일본은 이시기에 바블경제의 파탄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고, 글로벌화·균일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국민국가는 더 이상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초조와 불안이 “도착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초월한 민족성”⁴⁾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역사수정주의라 불리는 자유주의 사관⁵⁾이다. 이것은 자국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건강한 내셔널리즘”⁶⁾의 복원을 주장하며 과거의 대외전쟁과 식민지지배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자국중심, 자민족중심적인 사관이다. 무력으로 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역사를 부인하는 움직임은 앞서 오사와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상징정치, 자유주의사관에 근거한 경제 및 군사대국화로 이어졌고, 보수진영계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중문화 영역에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간 것이다.

3) 大澤真幸 『ナショナリズムの由来』 (講談社、2007.6) p.24

4) 吉見俊哉 「雑誌メディアとナショナリズムの消費」小森陽一/高橋哲哉編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東京大学出版会、1998.5) p.206 * 본 논문 중에 인용되는 일본어 문헌 및 소설작품의 한국어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임.

5) 요시에 아키오(義江彰夫)는 자유주의사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自己の利益と国益を一体視し、個人・社会・国家間の矛盾を黙殺し、予定調和的な有機体と見る視点。②日本社会が過去に犯した対外関係上の過ちを、問い直すことを「自虐」として放棄し、多様な弁明で肯定化する視点。③古代から現代まで日本の歴史を通して、天皇を社会統合のシンボルとして積極的に位置づける視点。小森陽一/高橋哲哉編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東京大学出版会、1998.5) p.100

6)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 p.159

한편, 1990년대를 전후한 세계적인 변화구도 속에서 역사인식 및 역사교육에 있어 자민족 중심의 자유주의사관을 주입하려는 ‘도착적인’ 네오 내셔널리즘의 공세에 대해 이와는 반동적인 형태로 역사학계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진보사관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일본의 전후역사학이 탈국민·탈국가적 시각에 입각하여 역사인식에 있어 내셔널리즘을 해체·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 주자가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로 이른바 ‘아미노사학(網野史學)’이라 불리는 역사관이다.

아미노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한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언제부터 일본이라 불렸으며, 일본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는 이민족의 존재를 밝혀내고 있다. 일본열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살아온 이들의 생활사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고대 및 중세에 활약한 다양한 직업의 계층민의 존재를 통해 일본이 농경중심의 사회라는 오인을 지적한다.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일본예찬의 일본론과 일본문화론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만큼 아미노의 사관은 일본사회에 있어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일본의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신화를 깬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의 『단일민족신화의 기원-‘일본인’의 자화상과 계보(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新曜社, 1995.7)의 출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사(日本史)에 있어서의 상식을 깨고 일본열도의 새로운 역사상(歴史像)을 제시한 아미노의 역사학은 일본사에 있어서의 탈구축이라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아미노사학에서 논자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고립된 섬나라라는 인식을 뒤집고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에 전환을 가져다 준 사실이다. 아미노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예를 들면 일본은 주위가 바다로 격리·고립된 ‘섬나라’이고, 그렇게 닫힌 세계에서 일본국 아래 장기간에 걸쳐 생활해왔기 때문에 일본인은 균질한 단일민족이라거나, 그래서 다른 민족이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온 반면, ‘섬나라근성’이라는 폐쇄성을 몸에 지니게 되었다는 ‘상식’이 언제부터인가 일본인들 사이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어쩌면 이 ‘상식’은 패전 후에 직접적인 연원이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으로 바다를 지키고 또 바다를 통하여 외적을 공격한다는 의식은 패전 전부터 일본인에게 침투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다를 사람과 사람을 격리시키는 장벽이라고 보는 시각은 일본국이 성립했을 당시 귀족들의 의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적어도 절반은 ‘신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열도의 현실과 유리된 이 시각이 허상임을 깨닫는 동시에, 왜 이러한 ‘상식’이 일본인에게 이렇게도 깊이 침투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당면한 큰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바다에 시점(視點)을 두고 인류 역사를 재고한다는, 현재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문제에 호응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⁸⁾

7) 이러한 아미노사관은 1970년대부터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저서로는 『無縁·公界·樂—日本中世の自由と平和』(平凡社, 1978.6), 『中世の非農民と天皇』(岩波書店, 1984.2), 『異形の王權』(平凡社, 1986.8), 『日本論の視座—列島の社会と国家』(小学館, 1990.11), 『日本の歴史をよみなおす』([正·統](筑摩書房, 1991.1~1996.1), 『日本社会の歴史』(上·中·下)(岩波書店, 1997.4~12) 등이 있다. 고단사(講談社)판 『일본의 역사(日本の歴史)』 시리즈물 26권 가운데 하나인 『「日本」とは何か』(講談社, 2000.10)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역사연구의 총결산물이라 할 수 있다.

8) 아미노 요시히코 지음/박훈 옮김 『일본이란 무엇인가』(창작과 비평사, 2003.5) p.24

인용은 1970년대말부터 시작된 아미노의 역사연구의 다이제스트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본』이란 무엇인가(「日本」とは何か)』(講談社、2000.10)에서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아미노가 편집을 담당한 『바다와 열도문화(海と列島文化)』 시리즈(11권. 小学館、1990.7~1993.2), 『일본사회 재고-해민과 열도문화(日本社会再考—海民と列島文化)』(小学館、1994.5)와 『해민과 일본사회(海民と日本社会)』(新人物往来社、1998.9)와 같은 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러한 아미노의 역사관과 연동하듯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인식에 있어서의 탈구축 현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과거사 재조명과 역사 속 인물 재발견과 같은 현상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라말의 해상무역왕 장보고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병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해신(海神)의 주인공이 바로 장보고였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장보고는 섬사람(海島人)출신으로 신라조정의 왕위계승 분쟁에 개입하여 승리를 거두었지만 후에 딸의 납매(納妃)문제로 신라조정에 반기를 든 ‘반역자’란 역사적 평가가 대세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 장보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왕 장보고’로 바뀌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선 최근에 마침내 바다의 신인 ‘해신’의 경지까지 도달했다.⁹⁾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적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움직임 속에 해상왕장보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김중명의 해양역사소설은 이러한 시대적 콘텍스트와 어떻게 호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일한인문학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지 살펴보자.

3. 역사로망의 변화—‘바다’와 ‘육지’의 가치전도

앞서 1990년대를 전후로 한 일본사회 내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소위 역사로망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사의 상식을 그 근저에서 파헤치며 탈국가·탈국민의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한 아미노사학의 영향은 1990년을 전후로 한 일본의 역사소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소위 역사로망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시라이시 이치로(白石一郎), 기타카타 겐조(北川謙三), 아베 류타로(安部竜太郎)등과 같은 역사소설가뿐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もののけ姫)》(1997), NHK의 대하드라마《모리 모토나리(毛利元成)》(1997)에도 그 영향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¹⁰⁾

9) 이병로 「동아시아의 거장 장보고의 대일교역」 한일관계사학회편 『한일관계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고종세-』(경인문화사, 2006.5) p.343

10) 加藤弘一 「網野史観と歴史小説」(「公明新聞」2001.4.23)

해양역사소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한 예를 들자면 전술한 네오내셔널리즘적 언설과 동북아협력체제 언설이 팽배해지기 시작한 시기에 남북조시대를 배경으로 한 기타카타 겐조(北方謙三)의 『파왕의 때(波王の秋)』(集英社、1996.9)와 같은 소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주변부를 살아가는 바다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파왕의 때』에는 몽고라는 공통의 적과 맞서기 위해 가미마츠라토(上松浦党)와 제주도를 근거지로 하는 나미노오(ナミノオ) 수군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미노오 수군과의 연합군을 지휘하는 가미마츠라토의 가이레이노미야(海嶺宮)의 후계자 고시로(小四郎=파왕)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소설은 원나라 수군과의 전투장면이 묘미로 읽히고 있다.¹¹⁾ 여기서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나미노오의 사자로 규슈(九州)에 잠입하는 류치쇼(竜知勝)란 인물이 고려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아로 설정되어 있는 점과 나미노오가 원과 고려의 이중 지배를 받아온 제주도를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이상을 품은 자라는 점 등은 대단히 흥미롭다.

그렇다면 전술한 일본사회의 변동 속에서 재일작가의 바다와 섬에 대한 시각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변화했을까.

대체로 섬사람에게 있어 “바다는 단절의 공간이고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색적인 땅”¹²⁾이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바다는 섬을 외부세계와 차단시키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은 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사유의 특성이 아니다. 일본열도에 산재한 디아스포라 재일제주인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서 바다와 섬에 대한 이미지가 재일문학 속에서는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가를 재일제주인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다.

재일1세대, 특히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 세대에게 있어 바다는 조국과의 단절,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정치적인 이유로 밀항선에 올라야 했던 자는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가 바다의 이미지와 함께 등장한다. 원수일(元秀一)의 「귀향(帰郷)」(『猪飼野物語—濟州からきた女たち』草風館、1987.7)에서 바다는 조국의 상황=6.25동란 그 자체를 상징하며¹³⁾, 양석일(梁石日)의 시 「무명의 때(無明の時)」(『夢魔の彼方へ』ピレージセンター、1996.9)에 나타나는 바다는 제주도4.3사건의 난을 피해 고향을 등지고 이국으로 향하는 자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다.¹⁴⁾ 이양지(李良枝)의 「해녀(かづきめ)」(『由熙 ナビ・タリオン』講談社、

11) 著者記載なし「海洋文学への誘い(3) 『波王の秋』」(「らん」44号 1999.7) p.65

「本書において見逃せないものの一つに水軍の描写がある。(中略)などなど従来の日本歴史小説の枠を超えた水軍戦闘の描写がきれいでいるところも本書の見所の一つである。」

12) 현길연 『제주문화론』(탐라목석원, 2001.6) p.229

13) 「しかし、なんやな、あれが不幸なんは、海で死んだお前の祖父と祖母の骨拾うことも出来へんからかもしれんな」「骨拾うにもどの海で死んだかもわからんのやろ」「そや、朝鮮戦争の時、船乗ってて二人とも爆弾受けて死んだ言ことだけわかってる」「どないしようもないやんか。それに祖父と祖母の祭祀はちゃんとしてると違うかった」「私らの国では海で死んだ者は海で祭祀せんとあかん言われてるからな」「ほんだら、神房呼ぶの」「チッチ、神房はこりこりや。お前のお父さんの時も、神房なんかに頼まんとさっさと大きな病院連れて行ってたら、助かったかもしれへんしな」(元秀一「帰郷」p.101)

14) 拷問でえぐられた眼球がぼっかりあき/喉を貫通した銃殺の弾丸から逃れ/燃えあがる家と/燃えあがる肉親をあとに/玄海灘の荒波に揺られて/その男はおれの前に現れ/韓国は未曾有の残虐と餓死がおおいつくしているといった/この男を同胞と呼ぶには/おれはあまりに無傷すぎる (梁石日「無明の時」p.24)

1997.9)에 나타나는 바다는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며 자궁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환상은 주인공의 죽음을 의미한다.¹⁵⁾ 그리고 양석일의 『천둥소리(雷鳴)』(幻冬舎, 2007.2)에서 바다는 중앙과의 단절, 유교적 폐습으로부터의 탈출을 좌절시키는 장애물로서 그려져 있다.¹⁶⁾

이 외에 고향=조국에 대한 향수가 제주도 바다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원수일의 「귀향」, 양석일의 「신주쿠에서(新宿にて)」(『タクシー狂躁曲』筑摩書房, 1987. 9)와 『천둥소리』, 현월의 「무대배우의 고독(舞台役者の孤独)」(『蔭の棲みか』文芸春秋, 2003.1) 등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관상적 바다 이미지와 척박한 섬의 토지에 비해 풍성한 해산물을 산출해내는 바다가 활달하고 성실한 해녀의 이미지와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제일제주인문학 속의 바다는 자연에 대한 예찬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국과의 단절, 격리, 고립, 폐쇄, 죽음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일제주인문학의 작품에 한하지 않는다. 제일문학 속에 나타난 바다는 대부분이 정적이고, 관상적이며, 상징적인 메타파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를 소설공간으로 하며 바다를 삶의 장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가는 김중명이 유일한 작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중명의 『바다의 민중(阜の民)』(講談社, 2000.6)은 당왕조, 신라왕조 말기, 헤이안기(平安期), 소위 율령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9세기의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고 있다. 소설은 사이초(最澄)의 제자인 엔닌(円仁)이 천태밀교를 배우기 위해 건당사선에 몸을 싣고 하카타(博多)를 출발하여 남해를 거쳐 당으로 향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즈음 다도해연안을 거점으로 바다를 생활의 장으로 하여 주로 어업,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인이었고, 신라의 신분계급제도인 골품제 하에서는 ‘해도인(海島人)’으로 불렸으며 ‘인간 외의 백성(人外の民)’으로 차별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진적이고 독자적인 항해술을 익혀 동아시아 바다를 자유로이 왕래하고 있었다. 『바다의 민중』은 당나라로 건너간 엔닌을 중심으로 한 장(章)과 장보고를 중심으로 장, 그리고 흥덕왕의 후위를 두고 왕위쟁탈전을 벌이던 신라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장을 교차시키면서 전개되고 있으나, 소설의 주인공은 소설의 제목 그대로 당시 바다를 누

15) <人間の臭い。人間の――>

彼女は服を脱ぎ始めた。そして全裸になり風呂場のドアを開けた。ちろちろと水道の見ずが浴槽からあふれ出ている。

<出ている、水の中に出ている>

頭の奥から低い唸り声が甦った。その声に促されるように彼女は浴槽の中に身体を沈め、頭を沈めた。

彼女の耳にサイシュウトウの岩肌につかる波の音が聞こえてきた。彼女は吼え立つ波間に跳びこんだ。砕ける海面の音が遠のき、自分の身体を水の中に解き放った。両手や両脚が自由に水の感触をまさぐり始めた。生まれてから一度も味わったことのない安ら지가、深く全身に浸み渡って行き、水の中で彼女はいつまでも揺らめいていた。(李良枝 「かずきめ」 pp.166~167)

16) 春玉の脳裏にふと『このまま逃げようか』という思いがよぎった。どこへ?どこへ逃げればいいのか?逃げる場所などどこにもない。海に囲まれた島から逃れる術はないのだ。(梁石日 『雷鳴』 p.72)

昔から濟州島の人間は陸地の人間から輕蔑され差別され、濟州島の人間は鯛か人か、とか、山からボールを蹴ると海に落ちたと馬鹿にされていた。例外はあるが、陸地の人間と濟州島の人間は結婚もできない。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濟州島の食べ物には食えないものではないと蔑まれたくない尹宗炫は、大工たちのために豚を一頭潰しかなりのご馳走を提供していた。大工たちは島の人間に対してどことなく見下ろした態度をとり、島の人間はなんとなく劣等意識を引きずっていた。(梁石日 『雷鳴』 p.109)

비며 해상무역을 해 오던 바다인들이다.

이 바다의 백성을 통솔하며 해양교역을 좌지우지한 인물이 청해진대사 장보고다. 그는 서쪽으로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일대, 인도, 중동에까지, 동쪽으로는 규슈(九州), 하카타(博多), 노토반도(能登半島), 도사미나토(十三湊)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교역권을 가졌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일대의 무역권을 장악하고 신라왕을 능가하는 재력과 군사력으로 해상왕국을 건설해 간 것이다.

바다의 민중은 자유분방하다. 인간의 지혜가 멀리 미치지 않는 바다 그 자체와도 같이 바다의 민중은 자유를 사랑한다. 규제와 속박을 싫어하고, 독립심이 왕성한 바다인을 통제하는 일 따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장보고는 반론했다.¹⁷⁾

육지 사람은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본다. 바다인은 바다에서 올려다본다. 눈높이가 다른 것이다. 육지로 올라가면 백성도 있고 계곡도 있지만, 바다는 어디까지고 편편하다. 바다인은 지금까지, 『위 없음(上無し)』으로 살아왔다. 이제부터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바다인을 육지 사람처럼 틀에 박을 수는 없다.¹⁸⁾

바다인은 육지의 ‘규제와 속박’이 싫어 바다로 나간 사람들이다. 바다인에게는 오로지 ‘위 없음(上無し)’, 즉 그들을 위에서 군림하려는 권력과 제도를 부정하는 수평사상이 존재할 뿐이다. 그들은 육지를 중심으로 한 사고, 가치, 질서, 세계관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바다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바다에서의 평화공존을 위해 그들 내부에도 규율은 존재했다. 그것은 조난한 자를 보면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는 것이다.

장보고가 추구한 이상왕국은 국경, 영토, 국가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며, 상하수직의 관계를 부정하는 수평의식에 근거한 공동체의 형성이다. 즉, 국가없는 공동체, 超국가적 세계관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다의 민중』은 근대 국민국가의 실체와 허상을 파헤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다를 통해 일본, 중국, 동아시아 각 곳을 왕래하는 바다인의 모습은 폭력과 내셔널리즘을 넘어선 와해와 협력체제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란 발상과도 연결된다.

육지인들 쪽에서 보자면 바다는 장애물이고 국경이지만, 바다인에게 있어 바다는 길이고, 생계의 장이다. 바다에 국경은 없다. 육지의 가치관을 바다에 가져오면 바다인은 금세 반발할 것이다.¹⁹⁾

『바다의 민중』은 바다와 섬이 주 무대다. 장보고선단의 활동범위는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일대, 인도, 중동에까지 달하고 있다. 이때 바다는 ‘길’이고, 섬은 바닷길의 한

17) 金重明 『皇の民』 * 인용은 磯貝治良·黒古一夫編(2006) 『<在日>文学全集 13 金重明·金在南』(勉誠出版, 2006.6)에 의함. 이하 동일. p.96

18) 『皇の民』 p.189

19) 『皇の民』 p.97

거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바다와 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 1994년 도야마현(富山県)이 제작한 환일본해제국도(環日本海諸国図)가 바로 그것이다.

환일본해제국도는 환일본해교류거점지역 형성을 위해, 즉 도야마현 앞바다인 일본해(동해)가 일본의 중심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과 북을 뒤집어서 대륙에서 일본을 본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일본열도는 호를 그리는 대륙의 끝이 되고, 오후츠크해, 동해, 동지나해(동중국해)는 호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아미노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는 육지중심의 사고에서 발생한 국경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일본이 “바다를 국경으로 다른 지역과 격절된 ‘고립된 섬나라’”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다는 오히려 “섬과 섬 사이의 어떤 해협이든 사람과 사람을 격리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도야마현이 일본국내의 교류거점지역으로서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가 현재는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한국, 러시아, 중국 등 환일본해지역의 초(超)국가적 지역자치체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의 협력체제를 선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체’연합 결성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2000년대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 또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병로는 장보고의 암살로 1200년 전 열어놓은 ‘해양의 시대’는 ‘해금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²¹⁾ 김종명은 해양역사로 망을 통해 세계사 속에 다시금 한반도의 역사를 링크시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보고가 암살당한 후 완도라는 교역의 중계점을 잃은 바다백성이 그 활동거점을 탐라로 옮겨 교역활동을 계속해간다는 소설의 결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란코(蘭香)는 이 탐라에서 저 먼 바다 끝에서 계속되는 교역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물자와 사람의 거대한 흐름으로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다, 라고 장보고는 말했다. 명언하지는 않았지만 신라가 멸망할 것도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고 장보고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중략) 그러나 장보고가 없어도 바다백성은 계속 살아갈 것이다. 교역으로 당나라의 번영을 지탱하고 당나라 내부를 변화시킬 것이다. 바다백성의 존재는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고, 그 구조에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당, 신라, 일본이라는 울렁을 기초로 한 3국이 지금 크게 흔들리려 하고 있음을 란코는 알고 있었다. 란코가 상대하고 있던 계림의 귀족들에게는 무엇이 원인으로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를 것이다. 당과 일본의 위정자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략) 그러나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란코는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다주는 것은 우리들 바다백성이다, 라고.²²⁾

20) 아미노 요시히코 지음/박훈 옮김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2003.5) pp.38-39

21) 이병로 「동아시아의 거장 장보고의 대일교역」 한일관계사학회편 『한일관계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고중세-』 (경인문화사, 2006.5) p.354

22) 『峯の民』 pp.264~265

바다의 민중(해양인)의 존재가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고, 그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끔 한 것처럼 바다를 통한 “물건과 사람의 거대한 흐름”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장보고의 말을 란코라는 여성을 통해 환기시키고 있다. 이로써 바다의 중요성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소설은 란코의 시점으로 해양민족의 후예로서 장보고의 딸 분키(文姬)가 그녀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양의 시대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끝이 난다.

4. 해양인의 후예

육지(영토)중심의 사고를 반전시켜 바다를 통해 즉 바다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정치와 역사를 조망한 『바다의 민중』을 발표한 6년 후 김종명은 고려의 대몽항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발표한다.

고종18(1231)년 몽고군이 개경에 들어오자 고려왕조는 수도를 강화도의 강도로 옮긴다. 그러나 매년같이 본토에 출몰해서 살상과 약탈을 반복하는 몽고군으로 인해 고려백성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고, 최우(崔瑀)의 사병집단에서 출발한 삼별초가 고려군의 정예부대로 강도를 방위하고 고려백성들도 민병을 조직하여 몽고에 저항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려왕조는 전면항복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과도한 공물, 영토할양, 일본원정에 필요한 병선, 병량, 무기 등 몽고의 요구는 더욱 심해졌고 원종11(1270)년 고려왕조는 강도를 버리고 다시 금 개경으로 천도한다. 이에 몽고에 대한 완전굴복은 고려의 죽음이라 생각한 삼별초가 고려왕조에 반기를 들고 몽고에 대한 계속적인 항쟁을 벌어나간다. 배중손(裴仲孫)을 중심으로 한 삼별초는 파괴된 강화도를 포기하고 서해를 남하하여 나주의 진도를 점령한다. 삼별초는 몽고에 굴복한 고려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진도에서 독립 왕조를 건설하여 세력을 확대시켜 나간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한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맞서기 위해 펼친 전략은 전라도 연해지역과 경상도 남부 연해지역 등 도서지역을 그들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고 제주도(탐라)를 후방기지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몽연합군의 강습에 진도마저 함락되고 지휘자 배중손을 잃게 된다. 『항몽의 오름』은 진도에서의 격전 후 삼별초 일행이 진도를 빠져나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 같이 『항몽의 오름』은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본거지를 옮기며 마지막 거점지인 제주도 향파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삼별초의 항쟁이 역사적 배경이 되어 있지만, 작가의 시각은 바다와 섬을 무대로,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별초가 제주도를 근거지로 선택한 데에는 전략기지로써의 중요성도 있지만 화자는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탐라라는 것은 반도 남쪽 200리 해상에 떠 있는 거대한 섬이다. 오랫동안 성주를 왕으로 모신 독립국이고, 신라말, 일본에서 대륙의 장강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해역을 제집 마당처럼 왕래했다는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탐라 남쪽 해안에도 근거지를 두고, 법화사를 건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도 있다. 그 후 탐라는 신라의 속국이 되고, 고려왕조가 되어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50년쯤 전 탐라는 고려의 현으로 편입되어 제주로 개명되었는데, 지금도 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는 보존되고 있고, 도민은 탐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고려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임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려했기 때문에 가끔 도민의 반란이 일어났다.²³⁾

“오랜동안 성주를 왕으로 모시는 독립국”이었고, 신라말에는 “일본에서 대륙의 장강에 이르는 관대한 해역을 제집 마당처럼 왕래했다는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근거지로 삼기도 했던 곳이 제주도이다. 독립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착취가 심해 고려조정에 대해서도 반감을 사고 있는 곳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귀포를 통해 제주도에 들어온 삼별초 일행은 안오름을 중심으로 향과두리성을 축성하고 주로 경상도 방면에 주둔하고 있는 몽고군에 대해 방어태세를 갖추어갔다. 그리고 류존혁(劉存奕)이 이끄는 남해를 거점으로 하는 해적선단을 야군으로 포섭하고, 일본에도 “호혜평등 관계로 동맹을 맺고 몽고에 대항하자”는 동맹요청의 국서를 보내지만 원군파병은 거절당하고 만다.

제주도에서 항쟁하던 시기의 삼별초는 이미 무예가 뛰어난 정예군이라 할 수 없었다. 대부분 노비에서 해방된 자, 몽고침입으로 인한 유민, 해적과 같은 자들로 “자신의 존속을 위해 백성을 몽고에게 팔아넘긴 왕 따위 왕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할 뿐 고려조정에 대한 충성심은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이미 방어력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별초는 여몽연합군에 대항하여 해상전을 거듭해갔다. 결국 1273년4월 향과두리성이 낙성되고, 삼별초를 지휘했던 김통정(金通精)의 자결시체가 붉은 오름에서 발견됨으로써 42년간의 고려의 대몽항쟁도 막을 내리게 된다.

『항몽의 오름』은 역사적 사실에 비교적 충실한 작품으로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며 주로 삼별초의 해상전투 장면을 그리고 있다. 픽션성이 가미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삼별초의 제주도에서의 항쟁 중 활약한 여성들의 존재로, 삼별초의 최지현을 만나기 전에는 관기였으나 현재는 의관을 돕고 있는 옥녀(玉女)와 마라도 출신의 자리(차리)를 들 수 있다.

“고토(五島)라 해도 탐라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거리적으로는 여기와 거의 다름없습니다. 해류를 입을 수 있는 바다인이라면 배로 하룻밤을 지내면 다음날 아침에는 도착할 것입니다. 육지인에게 있어 바다는 장애일지 모르지만, 바다인에게는 바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과 같은 것. 실제 자리가 태어난 곳은 마라도이지만, 고토에도 많은 친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현은 반신반의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인의 행동반경은 육지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 눈앞에 있는 우섬도 진도 근처 태생이라고 하지만 200리 남쪽 해상에 있는 탐라에 대해 묘하게 잘 안다. 자리와의 교제도 상당히 오래된 듯 하다. 200리 바다를 사이에 둔 사랑 같은 것 지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다.²⁴⁾

자리라는 여성은 『바다의 민중』에서 그려진 바다인의 후예라 할 수 있다. 삼별초의 항쟁

23) 金重明 『抗蒙の丘—三別抄耽羅戰記』(新人物往來社、2006.6) p.16

24) 『抗蒙の丘—三別抄耽羅戰記』 p.37

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자리는 바다길을 자유로이 오가며 삼별초의 활동을 적극 돕는다. 그리고 삼별초가 마지막 항쟁에서 실패하고 새로운 거점지를 향해 출발할 때 바다길을 안내하는 자 또한 자리였다. 삼별초가 단행한 노비해방으로 노비신분에서 벗어나 좌별초 병사로 들어와 김통정 휘하의 부장군이 된 최지현(崔芝賢)과 부관 서우섭(徐宇燮), 그리고 옥녀와 자리 등을 포함한 14명은 제주도를 빠져나가려한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고려도, 몽고가 지배하는 대륙도, 일본도 아닌 ‘바다인의 나라’ 류큐(琉球)다.

얼굴을 든 류준혁이 자리에 물었다.

“구엄포에서 어선을 훔치는 것은 좋지만, 그 후 어디로 갈 셈이나.”

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신 우섭이 대답했다.

“고려 땅에 남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몽고가 지배하는 대륙으로 향한다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은 어떠나.”

고토(五島)에는 자리의 친척이 있다는 얘기를 지현은 생각해냈다. 거기를 의지하는 것도 좋을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옥녀가 반대했다.

“몽고가 일본을 공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싫습니다.”

여자들이 수긍한다.

잠시 지나자 자리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류큐(琉球)”

류준혁이 손뼉을 쳤다.

“음, 류큐에는 한번 간 적이 있다. 바다인의 나라다. 좋은 곳이지.”²⁵⁾

삼별초 항쟁의 좌절은 고려의 대몽항쟁의 종식을 뜻한다. 그 결과 고려가 원의 복속국이 되고, 제주도에는 몽고의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어 고려와 몽고 양 세력으로부터 이중지배를 받게 된다.

『4.3사건은 말한다』 제1권의 일본어번역판 후기에 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종명은 자유로이 해상을 누비며 활약했던 고대 제주인이 주변의 강대국에 복속되면서부터는 섬과 바다를 닫힌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조선조에는 인조왕 7년(1629),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 조세부담 증가로 척박한 제주섬을 벗어나려는 자가 늘자 출국금지령을 내려 제주인을 섬에 가두어두었던 역사적 사실도 있었다. 이로 인해 바다는 ‘섬을 막아놓은 철조망’이었고, 또한 왜구와 해적의 잦은 출몰과 침탈에 시달려 온 과정에서 바다와 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²⁶⁾

제주인은 탐라라 칭했던 고대부터 자립자존의 백성이었다. 만리 파도를 넘어 멀리 일본정부와 직접 교섭을 가진 것이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에 기록되어 있다. 육지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 장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다인에게 있어 바다는 길이고, 생활의 장이다. 사방을 바다로 둘

25) 『抗蒙の丘—三別抄耽羅戰記』 p.58

26)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6) p.53 참조

러싸인 제주도의 바다인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역사의 앞무대에 선 적은 없어도 역사자료의 한 모퉁이에 금지높은 제주인의 활약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고려, 조선의 지배를 받아, 제주인도 마침내 조선의 바람에 친숙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불합리한 압제에 대해 단호히 일어설 기개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현재 제주는 무기력으로 뒤떨어있다. 선거가 되면 보수당 표밭이 되고 제주의 돌도 없는 자연이 육지 자본의 이용물이 되어도 단지 손가락을 물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일찍이 말랐했던 제주인의 면모는 지금은 없다. 4.3사건이 제주인의 마음을 조개처럼 닫아버렸다. 27)

청해진대사 장보고 그리고 삼별초, 이들은 복속과 피복속, 지배와 피지배라는 수직관계, 국가와 영토라는 개념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로워지고자 했다. 삼별초의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항쟁으로 42년간 계속되어온 대몽항쟁이 실패로 끝난 후 살아남은 최지현 일행이 향하는 곳은 류큐다. 한반도·중국·일본의 경계영역에 존재하는 주변적인 국가이자 해양무역국가인 류큐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은 또다시 바다를 향해, 또 다른 섬을 향해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중명이 바다와 섬을 무대로 한 소설을 통해 환기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복속받지 않는 독립왕국 탐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육지 사람에게 있어 바다는 장애물일지 모르지만, 바닷사람에게 있어 바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과 같은 것”²⁸⁾으로 여기는, 바다를 삶의 무대로 하여 살아가는 강인하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바다인으로서의 제주인의 모습이다. 현대사의 비극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4.3사건으로 인해 “조개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현실에 대해 김중명은 일찍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며 활달한 기상을 가진 제주인의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5. 나오며

재일문학은 국제정세를 포함한 외부환경과 세대교체와 같은 문학주체의 내부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변용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재일문학의 역사를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패전=해방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는 “식민지 체험의 극복과 정치의 계절”에 해당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서는 민족과 자아의 갈등 속에서 문학 주체를 실존적으로 탐구하려 한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민족을 초월한다’는 언설이 등장한 시기로 그 특징은 “‘상상의 공동체’=국가를 거부하고, 무경계지향과 <개아>의 절대성에 활로를 발견해 내려는 사고”²⁹⁾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7) 金重明 「訳者あとがき」 『済州島四・三事件 第一巻 朝鮮解放から四・三前夜まで』 (新幹社, 1994.4) pp.548~549

28) 『抗蒙の丘—三別抄耽羅戦記』 p.37

五島といっても、耽羅を起点に考えれば距離的にはここほとんど変わりません。潮目を読むことのできる海人なら船で一夜を過ごせば次の朝には着くはず。陸の人間にとって海は障碍かもしれませんが、海人にとっては海は人と人をつなぐ道のようなもの。実際チャリが生まれたのは馬羅島ですが、五島にもたくさんの親戚がいるといっていました。

29) 磯貝治良 「変容と継承—<在日>文学の六十年」 (『社会文学』26号 2007.6) p.42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인 중의 한 사람으로, ‘코리아 저패니즈’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명한 가네시로 가즈키가 소설 『GO』(講談社、2000.3) 집필시 참조한 문헌을 보면, 그가 지향하는 문학적 아이덴티티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의 『일본론의 시좌-열도의 사회와 국가(日本論の視座—列島の社会と国家)』(小学館、1990.11)와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의 『단일민족신화의 기원-‘일본인’의 자화상과 계보(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新曜社、1995.7)와 같은 문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네시로는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의 모순과 허구성을 고발하고 있다. 김종명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산물에 대해 바다라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가져옴으로써 동북아시아 역사인식에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종명의 소설은 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종명의 해양역사소설은 ‘위 없음(上無し)’의 수평사상과 ‘국가없는 공동체’ 모델을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바다인을 통해 체현시키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쟁탈전과 영토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육지에서 눈을 돌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 자유로이 해상무역을 해 온 고대인들의 활약상과 그 기상을 상기시킴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육지와 바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계슈탈트심리학에서 말하는 図와 地(그림/도식과 배경)의 전환이며, 동북아시아 역사인식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종명의 해양역사소설에 나타난 바다에 대한 사고와 시각은 포스트모던시대의 극복(근대의 초극, 근대국민국가의 초극)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본의 문단이 명명한 ‘재일조선한국인문학’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재일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현길연(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p.53, p.229
 아미노 요시히코 지음/박훈 옮김(2003)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p.24, pp.38~39
 이병로(2006) 「동아시아의 거장 장보고의 대일교역」 한일관계사학회편 『한일관계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고중세-』 경인문화사 p.354
 『済民日報』 四・三取材班/東京渌・金重明共訳(1994) 『済州島四・三事件 第1巻 朝鮮解放から四・三前夜まで』 新幹社 pp.548~549
 小森陽一/高橋哲哉編(1998)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 東京大学出版会 p.100, p.159, p.206
 著者記載なし(1999) 「海洋文学への誘い(3) 『波王の秋』」 「らん」 44号 p.65
 加藤弘一(2001) 「網野史観と歴史小説」 (「公明新聞」 2001.4.23)
 磯貝治良(2004) 『<在日>文学論』 新潮社 p.223
 金重明(2006) 『抗蒙の丘—三別抄耽羅戦記』 新人物往来社 pp.5~59
 磯貝治良・黒古一夫編(2006) 『<在日>文学全集 13 金重明・金在南』 勉誠出版 pp.5~266
 磯貝治良(2007) 「変容と継承—<在日>文学の六十年」 (「社会文学」 26号 2007.6) p.42
 大沢真幸(2007) 『ナショナリズムの由来』 講談社 p.24

- ◆ 논문 접수일 : 2009. 12. 31
- ◆ 논문 수정일 : 2010. 2. 1
- ◆ 논문 게재확정일 : 2010. 2. 10